

2013 문화계 결산 ② 공연



2013 광주세계아리랑축제 주재공연으로 선보인 ‘빛굴 아리랑’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연 취소, 지휘자 사퇴... 시립예술단체 시끌

올해 지역 공연계는 시립예술단체의 파업과 공연 취소 등으로 어수선한 출발을 했다. 여기에 지휘자 등 지휘자를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무용이 3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브랜드 공연 ‘빛굴 아리랑’이 호평을 받는 등 성과도 있었다.

광주 무용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올해 열린 제22회 전국무용제에서 서영무용단의 ‘작침’이 대통령상과 안무상을 수상, 광주로알발레단의 ‘티핑 포인트 37.5’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의 ‘자베

를’은 주연배우 문해영의 빼어난 연기와 극적 구성으로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밖에 정병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다솔, 시몬 디너스틴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이경민, 권혁주, 에라토 앙상블 등 클래식 공연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시아 예술극장 기획 완성도 아쉬움〉=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설 아시아 예술극장이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도시 횡단 프로젝트’는 전일빌딩 등에서 공연을 진행,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광주여고에서 진행된 ‘메이비 섬데이 언젠가’는 작품 제작에 투입된 제작비와 기간에 비해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광산구청과 놀이패 신명이 함께 제작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해 의미가 있었으며 50회를 넘긴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지난 2010년 창립한 다문화M오케스트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꿈의 오케스트라와 광주 등 문화 풀뿌리 활동이 눈에 띄었다.

또 400회를 맞은 빛고를 국악전수관 목요 공연, 우월선 사택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에 색다른 공연의 선보인 ‘양림의 소리를 듣다’ 등 눈에 띄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광주일보사와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 문화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한 ‘일본 문화 페스티벌’도 눈길을 끌었다. 김원호, 쿠리타 아사코, 사야카 쉐리나 등이 출연한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 구모자와 아키라 영화제, 일러스트 작가 나가이 가즈마사 전 등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무용, 전국무용제 3연속 대통령상 성과

‘일본문화페스티벌’ ‘양림의 소리를 듣다’ 눈길

〈잡을 쏘이지 않았던 시립예술단체〉=시립예술단 노조와 광주시의 대립으로 연초 광주시향의 공연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또 단원들과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루트비히 시향 지휘자가 낙마하고 체계바라 티셔츠 논쟁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까지 자진 사퇴하는 등 올해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요지경속이었다.

다행히 최근 공식이었던 시향과 합창단 등의 수장이 확정되고 노사협상도 타결되면서 2014년에는 완벽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자신만 광주’, ‘님을 위한 행진곡’ 등 광주 브랜드 공연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광주세계아리랑 축제 주재공연으로 선보인 ‘빛굴 아리랑’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재공연의 발판을 마련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빨’ ‘목란언니’의 김은성 작가와 유희성 연출이 참여한 ‘빛굴 아리

랑’에 이어 3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광주무용협회가 발간한 ‘광주근현대 무용사’는 지역 무용사를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지역의 터줏대감인 두 극단도 경사를 맞았다. 지난 1983년 창단 후 ‘금희의 오월’ 등 5월 관련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토박이가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또 창작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푸른연극마을은 올해 20년을 맞았다. 푸른연극마을은 20주년 기념작 ‘메베스’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올해는 기금 등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부산 등 6개 시도 극단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 진행, 지역 공연계를 탄실하게 했다.

기본 좋은 극장이 진행하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와 유·스퀘어문화관의 ‘굿 공연’ 시리즈 역시 올해도 이어졌으며 케니지, 사라 브라이트만 등 광주에서 처음 공연을 가진 세계적인 아티스트 공연도 눈

조각가 나상욱 광주미술협회장 선출

“미술문화 정책연구소 운영 중점”

조각가 나상욱(56)씨가 광주미술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출됐다. 회원 1700명에 달하는 광주미협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 단체다.

지난 22일 광주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나씨는 무투표 당선됐다. 경선 없이 회장으로 선출된 건 3대 회장이었던 학정 이돈흥씨에 이어 두번째다.

“큰 조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선거 기간 동안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미협, 함께하는 미협, 긍정적인 미협, 꿈꾸는 미협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나 신임 회장은 4년 임기 중 중점사업으로 미술문화 정책연구소 운영을 꼽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미술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나 문광부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문화 기획과 정책 연구를 통해 제안해야한다. 무작정 때 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미술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나 회장은 지역의 큰 행사인 광주 아트 페어의 성공을 위해 회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특히 예술의 거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증미술관 전용관 미술관 설립 및 운영 ▲기증품을 이용한 아트상품 개발, 미협 공방 설립 후 제작 유통 판매 ▲공공 전시 공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회원들 적극 참여 기회 확보 ▲미술 관련 공공 프로젝트 및 용역사업 정보 공유 등 공약 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회장은 청년 작가들의 작업 공간 마련과 원로작가들의 전시 기회 제공도 꼭 진행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과리 등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타 지역

문화정책 생산 역할 충실

예술의거리 활성화 연구

청년작가 작업공간 마련

원로작가 전시기회 제공

을 보면 폐교나 공장 등 버려진 공간들을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 지역도 찾아보면 그런 공간들이 많다. 후배 청년작가들의 경우 요즘에는 전시 기회는 많은데,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공간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배들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 원로작가들에게는 지속해왔던 작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겠다.”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나 회장은 가고시마 교류전, 동화 100주년 기념전 등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국무등미술대전 심사위



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 이사를 맡고 있다.

나 회장은 조각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설치된 5·18 추모탑, 광주학생운동 기념탑(조형물), 의재 허백련 선생 흉상, 오지호 선생 흉상 등이 그의 작품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리체’ 27일까지 소년소녀가장동기전

‘희망 마주보기’

갤러리리체가 지난해 개최한 ‘희망-바라보기’ 소년·소녀 가장 동기전에 이어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희망-마주보기’ 불우 이웃들이 전시회를 광주미술협동조합과 함께 마련했다.

작가와 갤러리, 미술애호가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전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이번 전시에는 강운, 김영일, 김해성, 김효삼, 류재웅, 박구환, 이양숙, 이희정, 장영훈, 전영록, 최재영, 한희원씨 등 모두 17명의 작가가 참여해 모두 40여점의 작



류재웅 작 ‘산수유-파란집’

품을 전시한다. 작품 판매 가격은 50만~150만원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이 갤러리리체의 설명이다. 갤러리리체는 지난해 수익금 600만원을 불우이웃들에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양숙 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

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서로를 보듬어 따뜻한 온기와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해마다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마련해 이웃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412-00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JBH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